

사랑하는 한캠USA 동역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로, 올 여름 해외캠프의 전체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7개 지역, 8개 사역입니다.(첨부 참조)

몇몇 분들의 기도와 비전 그리고 순종함으로, 2012년 1월, 철원캠프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온 해외캠프가 만 7년째 14회를 맞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년의 과정을 뒤돌아보니, '이번엔 힘들겠다!'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 이 한캠사역에 지속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애나하임 중심의 한글교실 사역도 LA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한 소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7:00am)에 한인타운 근처에서 예배와 함께 모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나하임까지의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가까스로 애나하임한글교실만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LA지역에도 새로운 장소를 구해 정기적인 예배는 물론 한글교실까지 진행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요,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순종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까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힘든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하신 말과 일들을 기억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역량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고갈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회복과 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채움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과 일들을 뒤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이사야 46:8-13)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로 시작되는 오늘의 묵상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과연 그 같은 분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지난 일들을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8,9절)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대부분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알리고' '보이고' 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10절) 다시 말해,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자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온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옛적부터 행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 '한캠USA'의 사역과 저희 동역자들에게도 이 회복과 채움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원드립니다.(13절) 그리고 부디 저희 모두가 '깨끗함(공의, righteousness)'과 '겸손함(not stubborn-hearted)'으로 주님의 구원활동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바라며,(12절)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철현 올림

HanGeul Camp USA

1661 N. Raymond Ave. #145

Anaheim, CA 92801

PS.: 기도 제목입니다.

1)현재 진행 중인 애나하임한글교실(매주 목요일 저녁 7:00-9:00)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선생님과 참가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그리고 올 여름 해외캠프의 일정을 보시고(첨부 파일 참조), 기도와 함께 참가할 젊은 Youth group의 추천과 참여를 권고 드립니다. 올 여름에도 중국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여름캠프에는 한국음악을 가르칠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또한 LA 한인타운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7:00~) '느새'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되는 '느새(느슨한 새벽예배)' 모임은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나, 교회에 냉담한 분들 그리고 초신자의 전도를 위한 예배의 장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